

김은정 개인전

《말, 그림》

고래 나무 물사슴 *Whale Tree Gorani*, 2025, Oil on canvas, 259.1x387.8cm

전시제목 : 김은정 개인전 《말, 그림》

전시기간 : 2025년 10월 2일(목) – 2025년 11월 8일(토)

전시장소 : 학교재 본관 (서울 종로구 삼청로 50)
학교재 오룸 (online.hakgojae.com)

출 품 작 : 회화 40여 점

○ 담 당 이주연 juyeonlee@hakgojae.com

○ 문 의 02-720-1524~6

보도자료 www.webhard.co.kr (ID: hakgojaeart, PW: guest)

보도자료 폴더 내 20251002-20251108_김은정_말, 그림

1. 전시 개요

학교재는 10월 2일(목)부터 11월 8일(토)까지 김은정(b. 1986)의 개인전 《말, 그림》을 연다. 이번 전시는 학교재에서 두 번째로 여는 개인전으로, 회화 작품 40여 점을 선보인다.

김은정은 언어로는 끝내 발화되지 못하고, 그림으로도 온전히 포착되지 않는 미묘한 지점을 탐구한다. 감각과 사유, 상상과 정서를 회화라는 매체에 담아내며 독자적인 조형 언어를 구축해 왔다. 그의 회화는 고정된 형상이나 단일한 서사로 환원되지 않는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겹쳐지고 확장되는 과정 자체를 드러낸다.

이번 전시는 이러한 과정적 성격을 집약적으로 선보이며, 언어와 감각, 현실과 상상 사이의 틈을 어떻게 드러내고 사유할 수 있는지를 탐구한다.

2. 전시 주제

김은정의 작업 세계는 날씨와 같은 자연 현상에서 출발한다. 바람, 구름, 햇빛, 비와 같은 기후의 변화는 단순한 풍경의 조건이 아니라, 삶의 불확실성과 유동성을 비유하는 상징적 장치다. 변화무쌍한 자연의 표정 속에서 그는 인간의 감정과 사건, 그리고 일상의 흔적을 읽어내고 이를 회화적 언어로 재구성한다.

그의 화면은 현실을 초월하는 허구와 상상을 품지만, 그 기저에는 작가가 직접 목격하고 체험한 순간들이 놓여 있다. 구체적인 체험은 은유와 서사의 층위를 거쳐 상상의 차원으로 확장되고, 다시 현실과 접촉하는 순환 구조를 형성한다. 이는 회화의 본질, 곧 현실과 상상이 교차하는 경계적 공간을 시각화하는 방법론으로 기능한다.

전시 제목 《말, 그림》은 심표와 띄어쓰기가 만들어내는 간극을 은유한다. 언어와 이미지, 설명과 감각 사이의 거리는 단절이 아니다. 서로를 비추고 보완하는 긴장 관계 속에서 드러난다.

김은정은 회화, 판화, 편집디자인의 문법을 교차적으로 활용하여 이질적인 매체의 언어들이 충돌하고 공명하도록 화면을 구성한다. 이러한 방식은 전통 회화의 물성적, 시각적 언어를 넘어서려는 시도다. 매체의 한계를 인식하고 그 경계를 확장하려는 실험적 태도에서 비롯된다.

그의 작업은 오래 바라본 풍경을 기억 속에 간직한 뒤, 그 잔상을 독백처럼 화면에 풀어내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장면들은 하나의 일관된 서사로 고정되지 않는다. 여러 번의 겹침과 중첩을 통해 새로운 조형적 관계망을 형성한다. 화면에 남겨진 흔적들은 우연성과 필연성을 동시에 품으며, 때로는 부러진 나뭇가지나 스쳐가는 인물, 동물과 식물 같은 존재로 구체화된다. 이것은 변화하는 환경 속 존재의 조건을 은유하며, 특정한 정서와 관계를 환기시킨다.

작가는 “‘말’이라는 논리의 세계로 들어가기 전, 이해하거나 설명하기 이전의 상태에서 나는 ‘그림’을 통해 지각(존재)의 방식을 드러내고자 한다.”고 말한다. 특정한 이름이나 개념에 고정되지 않은 채, 언어화 이전의 감각과 존재를 담아내는 시도로 이해될 수 있다. 단순히 이미지를 감각적으로 소비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관람자로 하여금 사유와 감각의 차원에서 작품과 마주하도록 한다.

이번 전시는 변화와 정체성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한다.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은 고대 철학의 역설인 ‘테세우스의 배’¹를 연상시킨다. 이는 존재의 지속성과 정체성, 그리고 변화의 본질을 성찰하도록 이끈다.

무엇을 드러내고, 무엇을 생략할지 끊임없이 타진하는 자기 질문의 연속이다. 배제된 것은 단순한 공백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층위에서 잔향처럼 작동하며 작품 전체에 파장을 일으킨다. 화면에 남겨진 것과 사라진 것 모두가 작품의 의미망 속에 공존하게 된다. 이로써 그의 회화는 단일한 해석을 넘어 다층적인 감각을 형성한다.

결과적으로 ‘그려진 것’과 ‘그려지지 않은 것’, 프레임 안과 밖, 언어와 이미지 사이에 놓인다. 바로 그 지점을 응시하며, 시각적 서사와 개념적 사유를 동시에 불러낸다. 따라서 단일한 주제나 명확한 서사를 제시하기보다는, 작품 속에 자리한 간극과 여백, 불확정성을 강조한다. 우리는 그 틈을 따라가며 지각과 존재의 조건을 경험하고, 변화와 지속, 현실과 상상이 교차하는 감각적 층위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결국 《말, 그림》은 ‘그림을 통한 말하기’이자, ‘말 너머의 그림’을 향한 시도다. 이는 동시대 회화가 여전히 마주하는 근본적 과제를 떠올리게하며, 회화적 언어의 지속적인 가능성을 탐색하게 한다.

¹ 테세우스의 배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역설로, 대상의 원래 요소가 교체된 후에도 그 대상은 여전히 동일한 대상인지에 대한 사고 실험이다. 그리스 신화의 영웅이며 아테네의 왕이었던 테세우스의 전설에 따르면, 테세우스는 괴물 미노타우로스를 죽인 후 미노스 왕으로부터 아테네의 아이들을 구출하여 델로스로 가는 배를 타고 탈출하였다. 매년 아테네인들은 아폴론을 기리기 위해 델로스로 순례하는 배를 타고 이 테세우스의 전설을 기념했다. 그런데 고대의 철학자들은 “수 세기가 지나 테세우스의 배의 모든 부분이 교체된다면 그 시점의 배는 원래 배와 여전히 같은 배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는 “배의 모든 부분이 교체되었더라도 그 배는 여전히 ‘바로 그 배’인가?”라는 질문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배의 부품을 교체하면서 원래 부품은 모두 창고에 두었다가, 모두 교체한 뒤 창고에 모인 부품으로 배를 하나 조립했다면, 무엇이 진정 ‘원래 배’인가?”라는 질문으로 확장되기도 한다.

3. 작품 소개



고래 나무 물사슴
Whale Tree Gorani

2025

Oil on canvas
259.1x387.8cm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주요 작품들인 <고래 나무 물사슴>, <한강의 초록비>, <부리 물고기 뿌리>는 이러한 과정의 응축된 결과물이다. 책장을 펼칠 때 좌우 페이지가 서로 다른 장면을 담으면서도 하나의 맥락으로 이어지듯, 캔버스 또한 분리된 동시에 연결의 장으로 펼쳐진다. 이 구성은 단순한 형식적 실험이 아니라,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을 드러낸다.

하나의 이미지는 언제나 불완전하며, 다른 조각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가 확장된다. 나누어진 화면은 "세계를 한눈에 다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그림과 그림을 이어주는 여백에서 더 많은 이야기와 감각이 발생한다. 관람자는 이미지를 읽는 동시에 공간을 가로지르며 넘겨보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된다.



한강의 초록비
Green Rain over the Han River

2024

Oil on canvas
193.9x224.2cm

「멋대로 자라 구불구불 뒤엉킨 힘센 나뭇가지들. 마르고 거친 껍질을 두른, 오래된 감나무가 기세 좋게 두 화면을 가로질러 뻗어있어. 꼭대기에 앉은 잿빛 새는 사각의 화면을 내려다보고. 눈길이 머무는 곳엔 뛰거나 헤엄치는 고라니들이 여럿 지나가. 그거 알아? 고라니의 다른 이름이 물사슴(Water deer)이야. 그때 뜬금없이 느릿한 걸음으로 나타난 공작 한 마리, 매끈하고 밝은 바다색 푸르른 피부 위로 무수한 흰 점들을 가르며 전진하는 나무 색의 동물.」
<고래 나무 물사슴> 작가노트

「서울에서 12년을 산 집은 강과 아주 가까웠다. 답답할 때면 달려 나가 서강대교를 건너며 물을 바라보곤 했다. 강은 바다와는 달라, 움직임이 훨씬 적다. 그 아래, 늘 멈춰 서던 그곳에 함께 모여 앉아 대화를 나누자. 여기 없어도, 여기 없어도.」 <한강의 초록비> 작가노트



부리 물고기 뿌리
Beak Fish Root

2024

나무에 배접된 종이에 유채, 한지
Oil on paper mounted on
wood, Hanji
182x350.4cm

「무엇을 온전히 아는 일이 가능할까. 부분으로 전체를 볼 수 있을까. '자연의 질서'라고 이름 붙인 것은 무엇을 오해하고 있을까. 물고기와 얼룩말 그리고 나방. 어째서 무엇이 어떻게. 쉽게 단정할까. 그 관점은 누구의 것이야? 지구를 관통하는 나무가 있어. 너무 거대해서 뿌리가 반대편까지 자라났어. 잔뿌리가 가득해. 자꾸만 자라. 더, 더, 많이 가득히. 그게 좋아. 원래 그렇거든. 그 럼 반대편으로 솟아난 가지는 뭐라고 부르기로 할까. 끝말잇기 같은 그림들. 그림을 넘어 그림으로 이동하는 그림. 구름모양 풍 선. 하얀색 언어. 아주 밝은 빛, 때론 깊은 어둠, 그 사이에 무수히 존재하는 공간. 공기가 희박한 곳에서 적절한 고도를 찾아 비 행하는 일. 과일 속 벌레처럼 뇌우를 품은 구름, 그 위를 날아.」
<부리 물고기 뿌리> 작가노트

4. 작가 소개

김은정(b. 1986)은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판화과와 시각디자인과를 졸업한 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일반대학원 조형예술과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말, 그림》(2025 학교재, 서울), 《뜻과 시작》(2024 갤러리 세이프, 서울), 《매일매일()》(2022 학교재, 서울), 《가장 희미한 해》(2021 학교재 디자인 | 프로젝트 스페이스, 서울), 《흠커밍》(2019 가변크기, 서울), 《연기나는 사람》(2018 에이라운지, 서울) 등의 개인전을 가졌다. 주요 단체전으로는 《세상에 모든 드로잉 in 천안》(2025, 호두뮤지엄, 천안), 《산세리프 섬》(2024 오브, 서울), 《블루》(2023 CDA, 서울), 《살갓들》(2022 학교재, 서울), 《일현 트래블 그랜트》(2017 일현미술관, 양양), 《멘토멘티》(2017 한원미술관, 서울), 《낮선 이웃들》(2016 서울시립북서울 미술관, 서울) 등이 있다. 2016년부터 '찬다 프레스'를 설립하고 운영하며 여러 권의 책을 펴냈다. 그중 『난민돌기』(찬다프레스, 2021)가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책방에 입고되었었다. 또한, 2017년 일현 트래블 그랜트 수상 작가로 선정된 이력이 있다.

5. 작가 약력

김은정

1986 경상남도 거제 출생

학력

2019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일반대학원 조형예술과 석사 졸업
2011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판화과 졸업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시각디자인과 졸업

개인전

2025 말, 그림, 학교재, 서울
2024 뜻과 시작, 갤러리 세이프, 서울
2022 매일매일 (), 학교재, 서울
2021 가장 희미한 해, 학교재 디자인 프로젝트 스페이스, 서울
2019 흠커밍, 가변크기, 서울
2018 연기나는 사람, 에이라운지, 서울

단체전

2025 회화, 교차된 시대의 흔적, 뮤지엄호두, 천안
잠시-묵음 : 타로 이티티 아아 모이에하 아파아 리하하 도서관 개관전, 수건과 화환, 서울
세상에 모든 드로잉 in 천안, 뮤지엄호두, 천안
2024 산세리프 섬, 오브, 서울
불시착 315, 화이트블럭 천안창작촌, 천안

- 디어, 디, KT&G상상마당, 서울
- 2023 누가 이 침대를 쓰고 있었든, 아트코너H, 서울
블루, CDA, 서울
- 2022 언 루트: 사소한 궤적, 신한갤러리, 서울
살갓들, 학고재, 서울
- 2021 페리지 윈터쇼, 페리지 갤러리, 서울
작은 모닥불 앞에 둘러앉은 소원들, 공간 카다로그, 서울
아이콘, 학고재, 서울
BGA 쇼룸, BGA 마루, 서울
- 2020 구름의 일각, 공간서울, 서울
반짝이는 소란, 오픈스페이스 배, 부산
- 2017 일현 트래블 그랜트, 일현미술관, 양양
나의 영토, 의외의 조합, 서울
멘토멘티, 한원미술관, 서울
- 2016 버티컬 라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술관, 서울
낮선 이웃들, 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 서울

프로젝트

- 2020 아티스트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오픈스페이스 배, 부산
피존밀크 포스터, 아르코 아트토크, 온라인 전시
- 2017 서울은 미술관, 팝업, 무인예술서점 쫓, 서울
- 2016 동북부미술대학 연계 발굴 프로젝트,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서울
- 2013 잃고 싶지 않은 것들, 오픈베타공간 반지하, 서울

레지던시

- 2024 화이트블럭 천안창작촌, 천안

출판 및 편집

- 2020-2022 『중간중간. Vol. 1』(편집), 중간지점
- 2021 『난민돌기』(글, 그림), 찬다프레스
- 2019-2020 『혜화. Vol. 1-4』(공저), 두루미출판
- 2019 『잠』(사진), 찬다프레스
- 2018 『씨위드』(공저), 쉼파트프레스, 언리미티드 에디션 10th
- 2017 『탄생쫓책방』(공저), 찬다프레스
- 2015 『지면전시』(공저, 편집), 스페이스윙앤윙
- 2011 『골목안 풍경(김기찬 대표사진선집)』(편집), 눈빛
『북아메리카 인디언(에드워드 커티스 사진집)』(편집), 눈빛

수상

2017 일현 트래블 그랜트상

2011 더 페이스샵 손크림 패키지 디자인 장려상